

# '평당 2361만원' 광주 최고가 아파트 분양권 10대 3명 당첨



광주 서구 농성동에 들어설 '빌리브 트레비체' 조감도.

### 서구 농성동 '빌리브 트레비체' 분양가 13~22억 달해

### 10~20대 당첨자 14명...김상훈 의원 "‘금수저’ 가능성"

최근 광주에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신세계건설의 '빌리브 트레비체' 분양 당첨자 중 10대와 20대가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고분양가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 대구를 제외한 지방의 분양가 상위 10순위 아파트에 광주에서 4개 단

지가 포함됐다.

광주 서구 농성동 빌리브 트레비체와 남구 봉선동 남양휴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1·2단지 등이다.

'빌리브 트레비체'는 3.3㎡당 평균 2361만원을 기록,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남양휴튼은 1929만원, 화정 아이파크는 1단지 1568만원, 2단지

1573만원이었다.

지난 5월 광주 서구 농성동에 분양한 '빌리브 트레비체' 당첨자 117명 중 10대는 3명, 20대는 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30대가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0명, 50대 15명, 60대 7명, 70대 3명 순이었다.

빌리브 트레비체는 3.3㎡당 평균 분양가 2361만원으로 역대 광주

최고가를 기록하며 '초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아파트다.

전용면적도 136~205㎡(옛 55~84평) 대형 평형이라 아파트 분양가는 최소 12억원에서 최대 27억원에 달한다.

당첨된 10대 3명은 모두 19세로 이 중 1명은 전용면적 190㎡(옛 77평) 22억원, 나머지 2명은 136㎡(옛 55평) 13억원짜리 아파트에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지난 6월 분양한 봉선동 남양휴튼 당첨자 중에서는 10대는 없고 20대 5명, 30대 12명 40대 11명 50대 3명, 70대 3명이었다.

지난 5월 분양한 화정아이파크 1단지와 2단지도 10대 당첨자는 없고 20대는 각각 4명과 3명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10~20대는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합산한 가점에서 불리하다"며 "고분양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액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첨자들은 재력을 갖춘 '청년부자'이거나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금수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 암보험서 '당뇨진단비' 뺀다...무분별 특약 끼워팔기 금지



이르면 2020년 2분기부터 암보험에 가입할 때 당뇨병진단비, 골절진단비 등은 특별약관(이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없다. 주계약과 무관한 특약 탓에 보험상품 구조가 더욱 어렵고 복잡해져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막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보험약관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 ◇불필요한 특약 발라내 보험 상품 단순화

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은 상품명과 무관한 특약 판매를 금지한다. 예를 들어 암보험에 가입할 때 암과 무관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은 특약으로 가입할 수 없다. 운전자보험 역시 화재별금, 골프활동 배상책임 등의 특약이 없어진다.

최근 1년간 가입 실적이 없거

나 낮은 특약을 동일 상품에 부가하거나,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담보가 포함된 특약 부가도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주계약과 상관없이 세분화된 많은 특약을 부가해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상품구조를 어렵고 복잡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무분별한 특약이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낮추고 있어 상품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암보험의 경우 특약이 최대 143개, 운전자보험은 최대 137개인데 이들 특약을 소비자가 판단해 가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약 가입은 다른 보험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약 부가 제한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예상된다. 암보험 특약인 당뇨병진단비를 보장받기 위해 앞으로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할기 때문이다.

법률·의료 사전검증 의무화...’위반 시 페널티 검토 중’  
오인 가능성 높은 보험상품명 정비...시각화된 약관요약서

### ◇보험상품 법률·의료 사전 검증 의무 부여로 '내실화'

내년 2분기부터 보험사의 보험 상품 법률·의료 사전 검증이 의무화된다. 보험사는 상품 개발 또는 개정 때 내외부 법률전문가나 준법감시인을 통해 법률 검토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기초서류 범규위반,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새로운 보장내용이 포함된 상품은 다른 보험사에서 해당 담보를 이미 판매하고 있다 하더라도 의료전문가를 통해 의료리스크를 검증 받아야 한다. 보험금

지급기준과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 등이 중점 검토 사안이다.

지난해 말부터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경증 치매보험의 경우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의학적 기준과 맞지 않아 논란이 일었고, 결국 약관 개정으로 이어진 바 있다.

현재도 보험사 자체적으로 법률·의료 사전 검증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법률·의료 사전 검증을 충실히 하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 2분기부터 보험 상품명에

상품 특징과 보험상품 종류를 넣고, 보장 내용과 다르거나 잘못 이해할 할 소지가 있는 표현은 쓰지 못한다. 예를 들어 가족사랑보험은 가족사랑 '정기' 보험으로 바뀐다.

같은 시기 그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한다. 일반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과 핵심 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도 새로 만든다.

뉴스1

## 가을 한정 '오에스 당근&크림치즈 출시

### 해태제과, 당근 원물 넣어



해태제과는 가을 한정 제품 '오에스 당근&크림치즈'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에스 당근&크림치즈는 분말이 아닌 당근을 원물 상태로 넣어 넣은 게 특징이다. 당근 주산지로 유명한 제주도에서 유래한 방식으로, 당근의 신선함과 아삭아삭한 식감을 살렸다는 평이다.

여기에 향이 진한 필라델피아 치즈에 시나몬 향을 더해 수제 케이크의 고급스러움을 구현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케이크에 수분을 빼앗기지 않은 당근 본연의 맛이 초콜릿과 이상적인 조화를 이룬다"면서 "400만개 한정 생산하는 가을 오에스를 통해 색다른 제철 케이크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삼립호빵 미니 가슴기' 한정 판매

### '삼립호빵 스페셜 에디션'



SPC삼립은 호빵 찜기 모양의 '삼립호빵 미니 가슴기'가 포함된 '삼립호빵 스페셜 에디션'을 시즌 한정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삼립호빵 미니 가슴기는 겨울철 편의점 앞에 놓인 빨간 호빵 찜기를 형상화한 소형 가슴기로, 찜기 위에 호빵 캐릭터 모형을 올려 귀여운 이미지를 부각했다. 또 직접 꾸밀 수 있는 스티커가 동봉돼 있어 나만의 찜기를 연출할 수 있다.

삼립호빵 스페셜 에디션은 23일부터 '키카오투 선물하기'를 통해 첫 판매되며 향후 온라인 쇼핑물 등으로 판매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장소비자가격은 1만8900원이다.

뉴스1

SPC삼립 마케팅 담당자는 "삼립호빵 미니 가슴기는 젊은 층의 취향을 반영해 호빵 찜기를 응용한 아이템으로 겨울철 건조한 실내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젊은 감성을 사로잡는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